

Sep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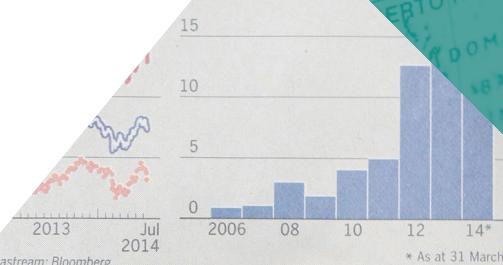
Hana Market Monthly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연구원 박정은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Datastream: Bloomberg

* As at 31 March

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l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n 17 times). About \$14bn is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Come Dine* sa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JPMorgan estimates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iberty's best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목 차

| | |
|---------|----|
| 금리 | 03 |
| 달러/원 환율 | 05 |
| 엔/원 환율 | 07 |
| 유로/원 환율 | 08 |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These tw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d and a fourth fact: these
trade below book value
times Rosneft's in
is reserves (Exxon
es). About \$14bn is
due this year, \$11bn
Rosneft may pay it
ing to sell its oil --
. Sanctions still allow
to US dollar clearing.

ance of ITV in the next six
but it could come back later
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of ITV would cost £7.4bn at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terest, tax depreciation and
ation. But without a bigger
liberty will be a watcher of
content, rather than a
ant in it

rofit schools
g is business in the US.
trill dollars is spent each
on secondary education.
ness of listed, for-profit,
ry schools is not so hot.
the class in this niche is
n Colleges, which is selling
ng nearly all its campuses
g sanctions from the
ent of Education.
partment has been cracking
for-profits following a 2012
sional review that found half
nts drop out and one-fifth
ov



금리

8월 동향 국내 4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 이슈 등에 따른 수급 부담과 한·미 중앙은행의 비둘기적 스탠스 후퇴 등으로 상승 추세 전환

초반, 국내 채권시장 수급 부담에도 미 추가 재정부 양책 난항 등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

- 월초, 국내 채권시장 수급 부담 속 상승 출발한 국고채금리는 이후 미 경제 회복세둔화, 더딘 재정부양책 협상에 따른 미국채금리 하락에 연동
 - 8월 초반, 미국 코로나 확산 지속하는 가운데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에도 국내 국고채 수급 부담 영향 등으로 상승 출발
 - 그러나 미국 경기 부진을 방어하기 위한 의회의 추가 재정부양책 협상이 더딘 흐름을 보임에 따라 미 국채금리가 큰 폭 하락하면서 국고채금리도 이에 연동

중반, 국내 재난관련 추경 이슈와 연준의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에 상승 전환

- 중반, 국내 4차 추경 반영하며 상승 전환한 금리는 이후, 특히 이슈 부재한 가운데 투자자들 국채선물 매수 등으로 소폭 하락
 - 8월 중반, 국내 수해 재난 관련 4차 추경 이슈가 반영되며 금리 상승 전환
 - 이후, FOMC 의사록에서의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에 대한 연준의 부정적 시각 등이 반영되며 상승세 이어졌으나, 수급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의 국채선물 매수 확대 영향으로 소폭 하락 전환하는 양상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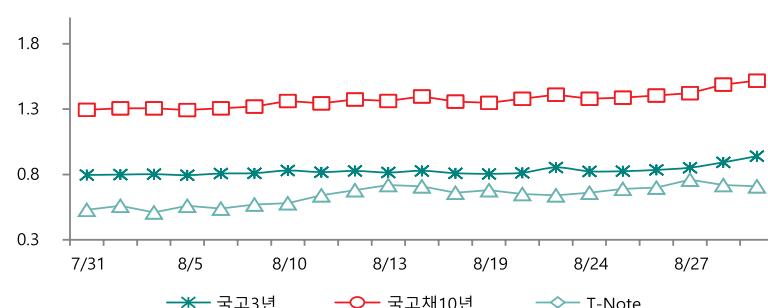
후반, 한국판 뉴딜, 코로나 관련 4차 추경 이슈의 수급 부담 우려와 한은의 예상보다 약했던 비둘기적 스탠스로 상승 마감

- 8월 후반,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 이슈, 코로나 관련 4차 추경 등으로 상승 전환 후, 금통위의 시장 예상보다 약한 비둘기적 스탠스로 소폭 상승 이어진 양상
 - 8월 후반, 한국판 뉴딜 관련 내년 예산 20조 이상의 반영 이슈와 코로나 및 재난 관련 4차 추경 이슈 등이 수급 부담을 야기하며 상승 전환
 - 이후, 미·중 긴장 고조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금통위에서 경제전망 수정치를 -1.3%로 크게 하향했음에도 완화적 스탠스가 후퇴하며 상승 추세 이어지며 마감

8월 평균

국고채(3년): 0.83%
국고채(10년): 1.37%
T-Note(10년): 0.65%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9월
전망**

국내 코로나 확산 지속에 따른 추경 이슈 등이 수급 부담으로 작용하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낮아진 국내 성장 모멘텀 등이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평균 | 2020. 1Q | 2020. 2Q | 2020. 3Q ^F | 2020. 4Q ^F |
|------------|----------|----------|-----------------------|-----------------------|
| 국고채(3y, %) | 1.09 | 0.90 | 0.80 | 0.80 |

- 미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장기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는 영향으로 금리 커브의 스티프닝 예상 속 국고채금리도 이에 상당부분 연동하게 될 경우 소폭의 상승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미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여 미 장기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 커브의 점진적 스티프닝 예상
 - 이는 국고채금리 방향에도 상당부분 연동된 영향을 미치며 소폭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국내적으로 추경 관련 이슈 등에 따른 수급 부담 요인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국내 성장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측면은 금리 상승을 상당 부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와 이어진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추경 관련 이슈 등이 국고채시장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하단을 지지하며 상승 견인할 전망
 - 그러나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비침체 가속화 속에 역성장 확대 가능성 등이 부각되는 측면이 금리 상승 추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한·미 중앙은행의 향후 스탠스에 대해 연준은 다소 완화적인 반면,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다소 약화된 측면은 금리 하단을 제한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연준의 평균목표물가제 도입이 인플레가 2%를 상회해도 당분간 저금리를 지속하겠다는 점에서 통화완화적 기조로 받아들여지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효과를 상쇄 할 것으로 예상
 - 반면, 한은이 성장 전망을 -1.3%로 낮춘 가운데서도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다소 적극적이지 않다는 시장 인식 등은 금리 하락 추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통화완화적 스탠스에도 평균물가 목표제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 한은의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약 · 추경 관련 국고채시장 수급 부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통화완화적 스탠스 지속 · 국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력 약화 속 성장전망 하향과 소비침체 가속화 등 |

미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임에도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이 소폭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 추경 이슈 등이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승에 영향 미치겠으나, 성장 전망 하향 등이 상승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9월 국고채(3년) 금리는 0.75%~0.90% 예상



달러/원 환율

8월 동향 미국 추가 재정부양 합의 난항 이슈, 글로벌 달러 약세 속 위험선호 흐름 지속 등으로 환율은 1,180원대 초반까지 하락 시현

월 초, 미국 추가 재정부양책 의회 협상 난항에 따른 달러 약세 심화 속 국내 조선사들에 의한 달러 수급 개선 등으로 하락

중반, 글로벌 금융시장 위험선호 영향에도 코로나 국내 확산, 연준의 YCC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하단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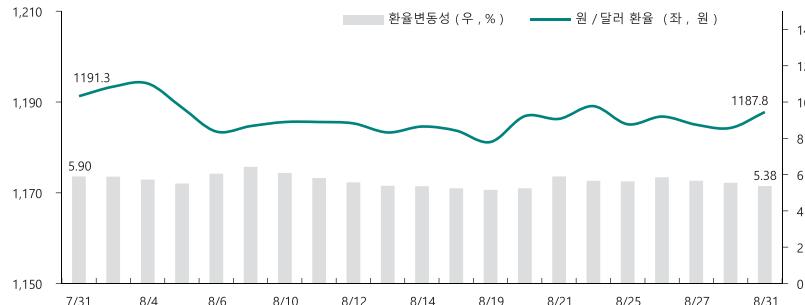
후반, 한은 수정 경제전망 하향에 따른 경제 체질 악화 우려에도 연준의장의 평균 물가목표제 시사와 일본 총리 사임에 따른 엔화 강세 속 하락

- 월 초, 미·중 갈등 고조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도 미 추가 재정부양책 난항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 지속과 국내 달러 수급 개선 소식 등으로 하락 출발
 - 8월 초,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영향으로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미 의회의 추가 재정부양책 협상 난항으로 달러화 약세 강화되며 환율은 하락 기조 출발
 - 여기에 국내 조선사들의 대규모 수주에 따른 수급상 달러 공급 우위 영향도 달러 약세 속 원화 강세 심화시키며 달러/원 환율은 1,180원대 진입
- 중반,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에 하락 추세 이어졌으나 국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연준의 통화 완화에 대한 매파적 뉘앙스 등이 하단 제한
 - 중반, 뉴욕증시 상승 추세 등에 따른 위험 선호 지속으로 1,180원대 중반 흐름 양상
 - 이후, 국내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증가하며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 전환과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에서의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시장 실망으로 달러 강세 전환하며 하락 추세 제한
- 8월 후반, 국내 코로나 확산 지속, 한은 수정 경제전망 하향에도 연준의 평균물가 목표제 시사와 일본 총리 사임에 따른 엔화 강세 대비 달러 약세로 하락
 - 8월 후반, 코로나 확산으로 2.5단계 거리두기 시행 속에 금통위 이후 한국 수정 경제 전망이 -1.3%까지 하향하며 국내 경제체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원화 약세에 영향
 - 그러나 연준 의장의 쟈스틴 윌슨 연설에서의 평균물가 목표제 도입과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에 따른 엔화 강세가 달러 약세를 견인하며 1,180원대 중반 흐름을 유지한 가운데 환율은 전월보다 3.5원 하락한 1,187.8원으로 마감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86.3원

8월말 달러/원 환율
: 1,187.8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하나은행

**9월
전망**

코로나 등 상존한 불확실성이 달러화를 강세로 돌리지는 못하겠지만, 국내 경제 체질 약화, 외환당국 경계감 강화 등이 1,180원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평균 | 2020. 1Q | 2020. 2Q | 2020. 3Q ^F | 2020. 4Q ^F |
|------------|----------|----------|-----------------------|-----------------------|
| 달러/원 환율(원) | 1,195 | 1,230 | 1,190 | 1,210 |

- 미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영향은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미 의회 재정부양책 가시화 가능성은 단기 경기회복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달러 강세 견인 할 전망
 -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의장이 시사한 ‘평균물가목표제’가 일종의 통화완화 유지를 추구하는 정책 인식에 따른 위험 선호 지속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미 의회 추가 재정부양 합의가 난항인 점은 달러 약세 요인이나 조만간 합의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 점증은 경기회복 모멘텀 강화요인으로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최근 미·중간 긴장 고조 요인 상존에도 1단계 무역합의 이행 등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위안화 강세가 다소 지속될 전망은 달러화 관련 불확실성 상존에도 원화 약세를 제한할 전망
 - 미 대선전까지 트럼프가 중국과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긍정적 1차 무역합의 이행 등으로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
 - 여기에 중국이 ‘V’자 경기반등을 보이며 위안화 강세 기조를 띠는 상황이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국내 경제성장 하향 수정 등 경제체질 약화와 달러 약세에 대한 외환당국의 1,180원 대 경계심리 강화 요인 등이 환율 하단을 강하게 지지할 전망
 - 국내 코로나 확산 속 2.5단계 거리두기 시행과 한은의 하반기 국내 역성장 확대 전망 속 국내 경제 신인도 약화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등이 환율 하락 추세를 제한할 요인
 - 여기에 대외적 달러 약세에 대한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등도 1,180원을 지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연준의 평균물가 목표제 시사 등 달러 약세 요인과 미 의회의 추가 재정부양 책 합의 가능성 등 달러 강세 요인이 함께 상존

미·중 무역 대화 가능성이 약화되었거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등으로 위안화 가강세를 지속하는 측면이 달러 약세를 지지할 전망

9월 달러/원 환율 레인저는 1,180원~1,195원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제성장을 역성장 확대 전망 · 상대적으로 국내 코로나 확산세 확대 · 외환당국의 경계심리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통화 완화 인식 · 미·중 긴장 고조 완화 속 위안화, 엔화 강세기조에 따른 상대적 달러 약세 |



엔/원 환율

8월 동향 달러 변동에 영향받아 106엔 전후에서 움직인 달러/엔 환율은 월 후반 아베 총리 사임 소식이 하락요인으로 작용. 엔/원 환율은 달러 변동,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아베노믹스 불확실성 등에 변동

엔/원 환율 전월대비
3.9원 하락한 1,121.8원
에 마감

- 달러 반등 속 엔화 약세에 엔/원 환율 하락했으나 약달러 재개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상승 전환 후 낙폭 축소
 - 월 초, 위험자산선호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전환에 따른 상대적 엔화 약세가 엔/원 환율 하락 견인. 100엔당 1,100원대로 하락
 - 월 중반, 미국 소비지표 부진과 미중간 고위급 회담 연기 소식 등에 따른 약달러 재개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속 원화 약세 영향으로 엔/원 상승
 - 월 후반, 달러 약세 조정 속 엔/원 환율 소폭 하락하는 듯 했으나 아베 총리 사임 소식에 아베노믹스 지속 불확실성 확대되며 다시 상승하며 마감

9월 전망 달러 약세와 아베노믹스 지속 불확실성에 달러/엔 하락 전망. 엔화 강세에 국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더해지며 엔/원 상승 전망

달러/엔 하락 우위 전망

- 약달러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베 총리 사임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엔화 강세를 견인함에 따라 달러/엔 환율은 낮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
 - 9월 FOMC(9/15~16)에서의 완화적 스탠스, 8일 재개되는 미국 의회의 추가 부양책 합의 지연 가능성 등 달러 약세요인 다수 상존
 - 아베 총리 사임 이후 신임 총리는 9/17일경 의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친 아베 성향의 후보가 차기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에서 엔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엔/원 환율 상승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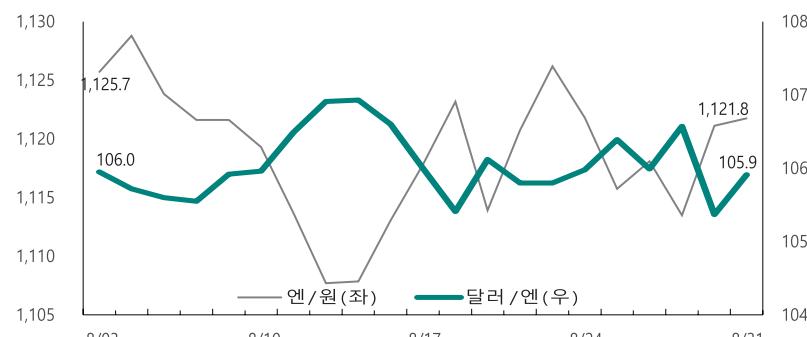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아베노믹스 지속 불확실성 등에 엔/원 상승 전망
 - 국내 경기 부진,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원화 약세, 아베노믹스 지속 불확실성에 따른 엔화 강세 등으로 엔/원 환율 상승 예상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재확산될 경우, 최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선호 가 안전자산선호로 전환되며 엔/원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6.0엔

8월 엔/원 평균환율
: 1,118.9원

9월 엔/원 예상 범위
: 1,100~1,14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8월
동향**

유로/달러는 달려 변동에 따른 상승과 하락 흐름 속 미국 저금리 장기화 전망에 달려 약세 심화되며 1.19달러대까지 상승. 유로/원은 유로화 강세에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화 약세까지 더해지며 1,410원까지 상승

- 유로/원 환율은 달려 반등에 1,380원대로 하락한 후 약달러 재개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410원대까지 상승

- 월 초, 달러화 반등 속 유로화 약세에 유로/원은 1,380원대로 하락
- 월 중반, 유로존 경기 회복세와 달려 약세 재개,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1,410원에 육박하는 상승 후 유로 강세 조정으로 상승 반납
- 월 후반, 미국의 저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달려 약세 강화, 이에 따른 유로화의 강한 반등에 유로/원 환율 1,410원까지 상승

유로/원 환율 전월대비
6.3원 상승한 1,410.3원
에 마감

**9월
전망**

유로/달러 환율은 달려 약세 지속 예상에 완만한 상승 추세 이어갈 전망. 유로/원 환율은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불확실성 등 원화 약세요인까지 더해지며 상승할 것으로 예상

- 약달러 영향으로 유로/달러 환율 상승 전망되는 가운데 심리적 지지선인 1.20달러에서의 속도조절 예상

유로/달러 환율 제한적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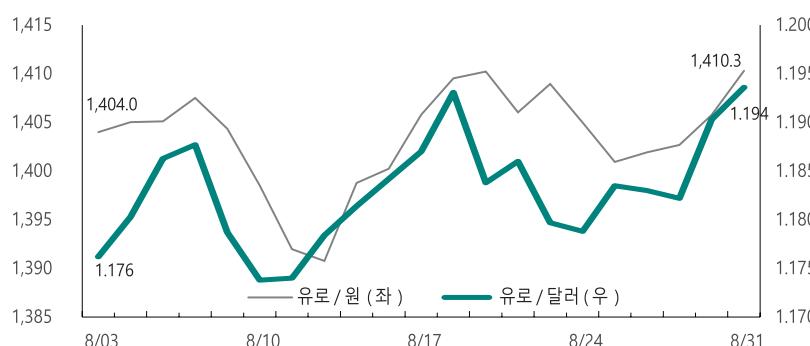
-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달려 약세로 추가 상승 예상되나 심리적 지지선인 1.20달러에서 속도 조절 전망
- 유로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에서의 교착 상태, ECB 추가 완화정책 시행 가능성 등 유로화 약세 요인이 유로/달러 상승을 제한할 전망

- 유로/원은 국내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 요인에 추가 상승 전망

유로/원 환율 추가 상승
전망

- 유로 강세 속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경기 부진 우려 등 원화 약세가 유로/원 환율 추가 상승 견인 예상. 다만, 유로화의 고점 인식에 따른 매도 가능성에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830달러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03.5원

9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390원~1,420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0.9월)

| 일 (SUN) | 월 (MON) | 화 (TUE) | 수 (WED) | 목 (THU) | 금 (FRI) | 토 (SAT) |
|-----------|--------------------|--|--|--|--|---|
| | | 1 豪 RBA | 2 | 3 | 4 | 5 |
| | | <p>한 20 GDP[-3.3% QoQ, -29% YoY] 8월 수출/수입(-7.9%/-1.9%, YoY) 8월 무역수지(\$4,270M) 일 8월 외환보유고(\$1,402.5b), 7월 실업률(2.8%) 중 8월 Caixin 제조업 PMI(52.8) 흐 RBA 기준금리(0.25%) 유 8월 Markit 제조업PMI(51.7), 7월 실업률(7.8%) 미 8월 ISM 제조업지수(54.2), New Orders(61.5) 8월 ISM 고용(44.3), 8월 ISM 구매물가(53.2) Fed's Brainard Speaks at Brookings on Economic Outlook</p> | <p>한 8월 CPI(0.0% MoM, 0.3% YoY) 유 7월 PP(0.7% MoM/-3.7% YoY) 미 7월 내구재 주문[F] 7월 제조업 수주(6.2%) Fed Releases Beige Book</p> | <p>한 8월 외환보유고(\$416.53b) 일 8월 지분은행 PMI종합/서비스[F] 중 8월 Caixin 서비스PMI(54.1) 8월 Caixin 종합PMI(54.5) 유 8월 Markit 서비스/ 종합PMI(50.1/51.6) 7월 소매판매(5.7% MoM, 13% YoY) 미 7월 무역수지(\$-50.7b) 8월 ISM 비제조업지수(58.1) 8월 Markit 종합/서비스PMI</p> | <p>한 7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독 7월 공장수주 (-27.9%, MoM/-11.3% YoY) 미 8월 실업률(10.2%) 8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763K) 8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1462K)</p> | |
| 6 | 7 | 8 | 9 | 10 ECB 통화정책회의 | 11 | 12 |
| | | <p>중 8월 외환보유고(\$3,154.39b) 8월 무역수지(\$62,33b) 8월 수출/수입(7.2%/-1.4%, YoY) 독 7월 신입생산 (8.9% MoM/-11.7% YoY)</p> | <p>일 2Q GDP[-27.8% QoQ, -78% YoY] 7월 경상수지, 7월 기계 소비지출(-12% YoY) 흐 RBA 기준금리(0.25%) 유 2Q GDP[-12.1% QoQ, -50% YoY] 2Q 고용(-25% QoQ,-25% YoY) 독 7월 무역수지/경상수지</p> | <p>한 8월 실업률(4.2%) 일 8월 CPI/PP(2.7%/-2.4%, YoY) 중 8월 공작기계 수주</p> | <p>일 7월 핵심기계수주 (-7.6% MoM,-22.5% YoY) 중 8월 외국인 직접투자(15.8%) 유 ECB 기준금리(0.00%) 미 8월 PP(0.6% MoM, -0.4% YoY)</p> | <p>한 7월 통화공급 전월비 일 8월 CPI(0.6% MoM, -0.9% YoY) 독 8월 CPI[F] 미 8월 CPI(0.6% MoM, 1.0% YoY)</p> |
| 13 | 14 | 15 美 FOMC(~16) | 16 BOJ 통화정책회의(~17) | 17 BOE 통화정책회의 | 18 | 19 |
| | | <p>일 7월 설비가동률(6.2% MoM) 7월 광공업생산[F] 유 7월 신입생산 (9.1% MoM, 12.3% YoY)</p> | <p>한 8월 금동위 의사록 공개 한 8월 수출물가지수 (-0.4% MoM,-5.8% YoY) 8월 수입물가지수 (-0.9% MoM,-9.0% YoY) 중 8월 광공업생산/소매판매 (4.8%/-1.1%, YoY) 유 9월 ZEW 서비스 예상(64) 미 8월 수출/수입물가 (0.8%/0.7%, MoM) 8월 수출/수입물가 (-4.4%/-3.3%, YoY) 8월 설비가동률(70.6%), 광공업생산(3.0%)</p> | <p>일 8월 수출/수입(-9.2%/-22.3%, YoY) 8월 무역수지(\$11.6b) 유 7월 무역수지 미 FED 기준금리(0.0~0.25%) 미 7월 기업지고(-1%) 8월 소매판매 주정(1.2% MoM) Powell Holds Post-FOMC Meeting Press Conference</p> | <p>일 BOJ 기준금리(-0.10%) 영 BOE 기준금리(0.10%) 유 7월 건설판매(4.0% MoM, -5.9% YoY) 8월 CPI(0.4%, YoY) 미 8월 주택착공건수(2.6% MoM) 8월 건축허가(18.8% MoM) 9월 필리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7.2%)</p> | <p>일 8월 전국 CPI(0.3% YoY) 유 7월 경상수지(20.7b) 독 8월 PP(0.2% MoM, -1.7% YoY) 미 2Q 경상수지(\$-104.2b) 8월 선행지수(1.4%)</p> |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 | | <p>한 9월 수출입 20일 전년 대비 미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1.18)</p> | <p>한 8월 PP(-0.8% YoY) 유 9월 소비자기대지수[A] 미 8월 기준 주택매매(24.7% MoM) 9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자수(18)</p> | <p>유 9월 Markit PMI 종합, 제조업, 서비스[P] 독 9월 Markit 서비스/종합PMI[P] 10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 미 9월 Markit 제조업/ 서비스/종합PMI[P]</p> | <p>일 7월 BOJ 금정위 의사록 공개 독 9월 IFO 기업환경지수(92.6) 미 8월 신규주택매매(13.9% MoM)</p> | <p>한 9월 소비자신리지수(84.2) 일 8월 PP 서비스(12% YoY) 미 9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8월 내구재 주문</p> |
| 27 | 28 | 29 | 30 | | | |
| 중 8월 신입생산 | 미 9월 덜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 <p>한 8월 광공업생산 8월 경기순환형 선행지수 변동 10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일 9월 BOJ 금정위 오약본 공개 유 9월 경기/산업/서비스/ 소비자 기대지수</p> | <p>한 9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일 8월 소매판매 8월 광공업 생산/ 건설 수주/주택착공건수 7월 자동차 생산 중 9월 종합/제조업/비제조업 PMI 미 2Q GDP 연간화(QoQ) 2Q 개인소비, 2Q GDP 물가지수</p> | | | |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하나은행 자금시장영업부 (TEL 729-0190)로 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 (www.kebhana.com → 외환포털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